

04. 고대 동아시아의 상황과 한중일 삼국의 관계

②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0. 참고연표 (AD 3C~10C초)

참고 연표

	중국	한반도	일본열도	
3C	후한 삼국시대 (위·촉·오) 진(西晉)		야마타이 국 (소국연합)	후한의 멸망과 위(魏)의 건국(220), 촉(蜀)의 건국(221), 오(吳)의 건국(222) 여왕 히미코(卑弥呼)가 위에 청동사절 파견(239) 촉의 멸망(263), 사마씨의 전횡과 진(서진) 건국(265) 오의 멸망과 진(서진)의 중국통일(280), 8왕의 난(291~306) 진(서진) 멸망과 5호16국시대의 개막(316), 동진(東진)의 건국(317)
4C	5호16국 동진 (東晉)		야마토정 권 (동국연합)	동진 멸망(420) 북위(北위)의 북중국 통일(439), 왜5왕의 남조 조공(421~478)
5C	북조 (北魏 등) 남조 (南朝)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高麗) 시대 (고고학 정구분)	게이타이(繼體)전황 즉위와 왕조국가화(507) 북위의 동서 분열(535), 불고전래와 아스카시대의 개막(538) 북주(北周)의 북중국 통일(577) 북주의 멸망과 수(隋)의 건국(581), 남조의 멸망과 수의 중국통일(589)
6C	수(隋)		아스카 (飛鳥) 시대	수의 고구려 원정(611~614), 당(唐)의 건국(618) 백제의 즉위와 정관의 치세(貞觀之治: 626~649), 불교(佛敎) 북송(636), 현장(玄奘)의 인도여행(627~645), 다이카개신(大化改新: 645) 백제 멸망(660), 고구려 멸망과 신라의 삼국통일(668) 후연무후(後燕慕容)의 청제와 주(周) 건국(무주최명: 690)
7C				당의 재건(705), 현종의 즉위와 개원의 치세(開元之治: 712~756) 헤이조크(平家景)전도와 나라시대의 개막(710), 기존 변진(倭眞)과 절도사(討伐使)의 추인(742) 팔라스 전투(751), 안사의 난(安史의 난: 755~763) 양세법(兩稅法)의 실시(780), 헤이안크(平家景)전도와 헤이안 시대의 개막(794) 변진의 억제와 신적군(神策軍)의 강화(元和申發: 809) 무이당정(武寧黨: 820~860)
8C	당(唐)		나라(奈良)시대	
9C			헤이안(平安)시대	
10C				황소의 난(黃巢의 난: 874~883) 당의 멸망과 주전충(朱全忠)의 후량(後梁) 건국(907), 신라의 멸망(935)

1. 북방민족의 이동과 남북조(南北朝)시대

I. 삼국 분열의 시대와 서진(西晉)의 통일

• 후한말의 혼란과 삼국시대(2C말~3C말)

: 유명한 「삼국지」의 배경시대. 중국전역의 혼란은 위촉오 3국으로 정리됨

: 오 왕조의 건국은 후일 중국의 새로운 중심지역이 되는 강남지역의 개발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

: 조조(曹操)가 건국한 위 왕조는 병호제(兵戶制)란 일종의 모병제, 그리고 둔전제(屯田制)에 의한 유민들의 토지정착(+농경강제),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인재 채용법을 시행, 삼국 중에서 가장 강성해짐

• 진(晉: 西晉)의 중국통일

: 유력 호족 사마씨(司馬氏)는 위 황제를 대신해 실권을 장악한 뒤, 선양을 통해 황제권을 찬탈하고, 진 왕조를 건국(265). 곧이어 중국통일(280)

: 후한 멸망의 원인인 호족들의 토지점병, 소농민들의 토지이탈을 막고자 노력했으나, 그럼에도 힘을 키워가는 호족들을 억제할 방편으로 시행한 봉건제적 정책(=사마씨 일족들의 제후왕 책봉)이 황제권력을 약화/분산시킴

→「8왕의 난」(291~306)

: 8왕의 분란과정에서 제후왕들의 용병으로 채용된 북방 유목민 세력이 북중국 일대에 진출하여 권력을 장악하게 됨(5호16국 시대의 시작)

1. 북방민족의 이동과 남북조(南北朝)시대

II. 5호의 대두와 동진(東晉), 남조(南朝)

- 호족(胡族: 북방유목세력)의 북중국 진출과 국가형성(=北朝)

- : 서진 지배세력의 부패, 유력자들의 토지점병→소농민들의 강남 이주

- : 부족 단위로 용병생활을 하던 호족들이 북중국에서 자립화(국가 형성)

- : 서진 멸망(316)→이후 한족/호족들에 의한 18개국, 22개 정권이 난립
→5호(흉노/선비/저/갈/강족)16국(편의적 명칭. 정확한 수치X)

- : 그 결과 한족과 호족의 융합체제가 성립하는데 이는 수·당 왕조에 계승

- : 다만 그 융합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시행착오, 그리고 호족사회 자체가 부족들의 연합이란 일종의 봉건적 요소를 내포했기 때문에, 호족 왕조인 북조의 국가들은 대체로 단명함

- 동진의 건국(317)과 남조

- : 북중국에서 피난해 온 귀족들과 강남 토착세력들과의 연합

- so 귀족세가 강하고 황제권이 약함. 귀족들 사이의 정권쟁탈 빈발

- : 결국 그 귀족집단 중 하나에 의해 멸망

1. 북방민족의 이동과 남북조(南北朝)시대

II. 5호의 대두와 동진(東晉), 남조(南朝)

- 동진의 건국(317)과 남조 (계속)

- : 동진 멸망 이후 남중국에서는 송(宋)→제(齊)→양(梁)→진(陳)이 건국

- : 이를 남조라 하며 420~589년까지 존속

1. 북방민족의 이동과 남북조(南北朝)시대

III. 북위(北魏)의 건국과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

• 북위의 건국(389)과 북중국의 통일(439)

: 5호 중 선비족 출신. 기존의 북조 국가들과 달리 중국식 집권적 국가체제를 상당 부분 채용한 점이 특색(→강력한 황제권 창출 목적)

: 여기에 황제권 강화를 위해 종교를 이용한 점도 특징적. 초기 도교를 이용하다가 불교로 바꿈. 그 결과 불교는 북위의 기득권 세력에 편입되어 황제의 지배권 강화에 기여(국가불교 · 호국불교)

→불교의 이런 기능에 한반도 삼국과 일본열도의 지배세력들이 주목함(국가불교 확산)

: 중국식 집권적 국가체제 창출시도(=漢化政策)

→균전제 도입(황폐해진 농경지를 몰락농민에게 분배하여 조세수입 확보)

→관리들에게 봉급 지불(기강 확립 의도. 토지부여를 통한 각자조달X)

→균전제 시행을 위한 「호적」작성

→한족 성(姓)의 채용과 호/한 지배계급 간의 통혼 장려(중국식 문벌귀족화)

: 이러한 중국화 정책, 그에 따른 문관 우대는 무관 및 병사들의 반발초래

→국경 경비집단의 반발과 조정 내부의 권력다툼이 연동. 분열상태化

: 이후 북주(北周)가 북중국을 통일하나(577), 곧이어 수 왕조에게 멸망

1. 북방민족의 이동과 남북조(南北朝)시대(+참고도판)

III. 북위(北魏)의 건국과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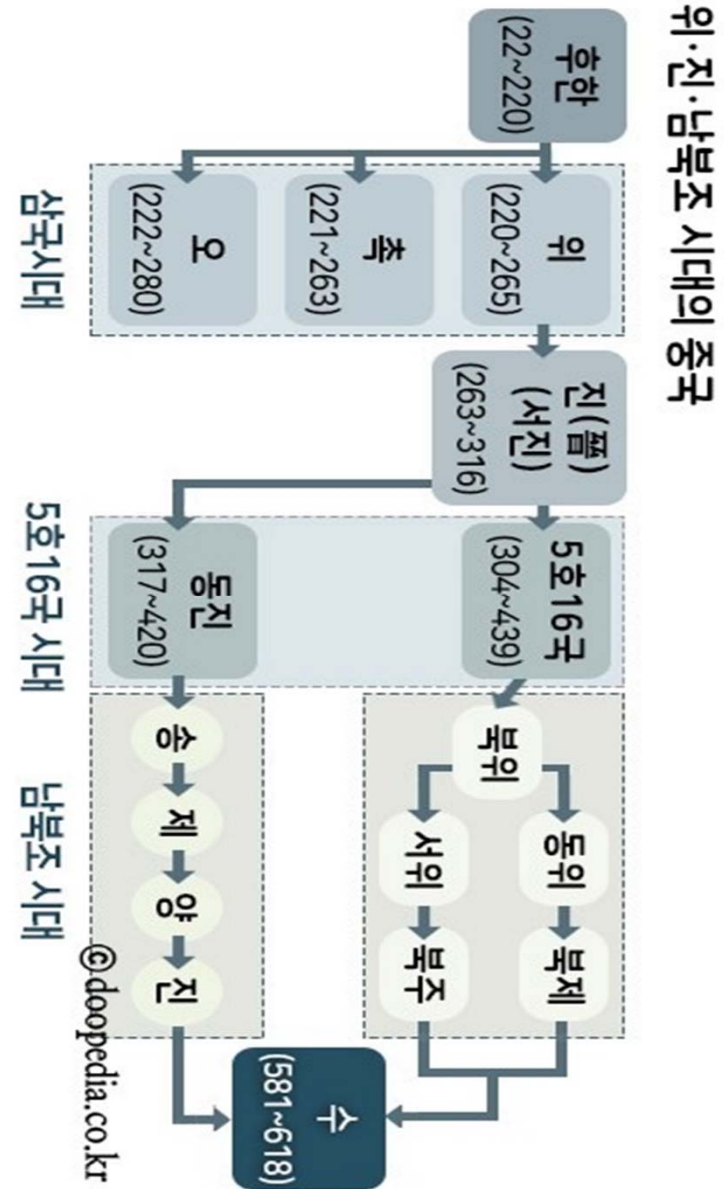
• 위진남북조의 사상과 문화

: 무엇보다 한대의 유학에 비해 불교, 도교가 성행한 점이 큰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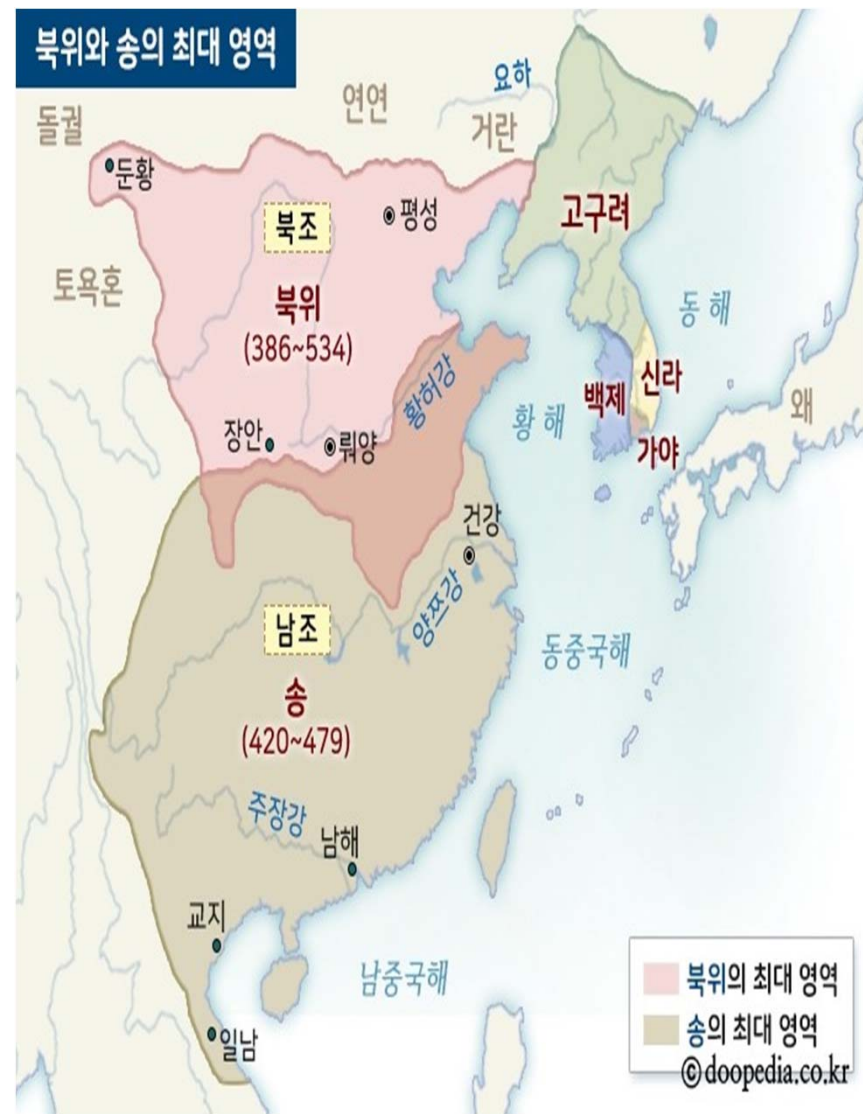
→유학은 체제안정기에는 그 효용성이 크나, 반대로 혼란기에는 적음

→혼란기를 통해 유학에 비해 잘 정비된 내세관을 가진 불교, 그리고 현실도피적 성격이 강한 도교가 주목 받음

→불교와 도교는 이 시기 중국문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수·당대에 이르러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산됨. 그 결과 동아시아 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남음



1. 북방민족의 이동과 남북조(南北朝)시대: 참고도판



2. 수(隋) · 당(唐) 왕조와 고대 중국의 완성

I. 수의 중국통일(589)과 그 성격

· 수의 중국통일과 이후의 과제들

: 선양에 의한 북중국 통일(581), 남조의 진을 멸망(589)

→400년 만의 중국통일

: 긴 분열기의 주원인=강력한 지방세력(=豪族) 약화가 과제→지방관제 정비

: 지방행정조직의 단순화...주(州)/군/현 에서 주/현으로

: 지방관의 병권 회수, 하급을 포함한 전 지방관의 중앙파견, 출신지 파견X

→관료제 정비를 통한 황제권 강화(관료의 힘으로 지방 호족 견제)

: 정비된 관료제를 위한 개별 관료들의 확충

→과거(科擧)제의 시작(~1905)

: 병제/토지제도의 중앙집권적 개혁 (상세는 다음 프린트에서 후술)

: 남북을 잇는 대운하의 건설→정치/경제/군사적 의의

: 당 왕조로 계승되는 「조공/책봉체제」의 시작 (다음 프린트에서 후술)

: 최대의 군사적 위협 돌궐(突厥) 제거를 위한 고구려 원정(611~614)

→군사적 실패와 각지의 반란

2. 수(隋) · 당(唐) 왕조와 고대 중국의 완성

II. 당의 건국(618)과 발전

· 당의 건국

- : 중국전역의 할거와 이연(李淵: 高祖)의 장안 점령
- : 수와 마찬가지로 지배집단은 호족(胡族) 혹은 호족화된 한인(漢人)
- : 태종(太宗: 李世民)과 「정관의 치세」(貞觀之治: 626~649)
- 내정보다는 대외정책에서 성과
- 북방 유목세력의 평정, 북속 이후 감독 하의 자치인정(기미정책)
- 세계적 대제국의 등장

· 무주혁명(武周革命)과 현종(玄宗)의 치세(開元之治)

- : 무후(武后: 측천무후)의 황제권 찬탈과 칭제, 당→주(周)
- : 당의 재건(705)와 현종의 즉위(712)→당의 절정기(盛唐)
- 문벌귀족 대신에 과거출신 관료들이 대거 등용
- 한말 이래의 지방 호족들, 그리고 이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성립한 문벌귀족 등, 군주와 백성 사이의 중간지배층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고자 시도
- 「율령(체)제」의 완성과 국가에 의한 직접적 농민지배

*text pp.166~174의 율령제 구체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 수업에서 상술함

2. 수(隋) · 당(唐) 왕조와 고대 중국의 완성

III. 안사의 난과 성당의 종언

· 중국적 「고대」의 종언과 중세의 시작

: text pp.170~171의 내용은 중국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

: 중국적 고대(와 이를 모방한 주변국의 고대)의 핵심은 율령체제. 정교한 관료제에 의해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군주(皇帝)와 그 지배를 받는 백성(民). 모든 토지는 원칙적으로는 군주의 것으로, 군주는 그 경작권을 민에게 부여. 민은 그 대가로 병역과 각종 세금 및 노동의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해 관료들은 호적을 작성하여 민의 정보를 파악

: 다만 이런 국가모델은 몇 가지 약점이 존재. 관료 구성원들의 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민은 병역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세금(현물)의 운송비용까지 자가 부담해야 했음. 결국 7C후반에 들어와 율령제는 동요의 조짐이 보이는데, 그 시작은 국가에서 부여받은 토지를 버리고 도망하는 민의 발생이었음 (=逃戶)

: 민이 토지를 버리고 도주하면 병역을 수행할 이도 사라지고(징병제 붕괴), 조세수입도 감소하여 국가재정이 동요. 게다가 버려진 토지를 지방 유력자들이 쉽게 입수하여(토지겸병)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황제권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

2. 수(隋) · 당(唐) 왕조와 고대 중국의 완성

III. 안사의 난과 성당의 종언

· 중국적 「고대」의 종언과 중세의 시작 (계속)

: 징병제가 붕괴되자 국가에게 남은 선택은 모병제. 8C 중엽까지 당의 변경 지역을 중심으로 「번진」(藩鎮)이란, 군사지도자(節度使)가 다스리는 지배기구들이 정비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모병제가 도입되기 시작. 절도사는 이들 병력을 사적으로 지배하며 이민족 및 다른 절도사를 견제하기 위해 세력 확대에 몰두 (상세는 text pp.177~181 참조)

: 8C중엽 당 왕조를 붕괴직전까지 몰고간 「안사의 난」의 주도자 안록산(安祿山)은 바로 절도사 출신. 이들 절도사들이 다스리는 번진은 몇 개의 주(州)를 합친 면적에 상당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최고의 지방 행정단위화했는데, 절도사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강화시켜 가면서, 이들 번진도 점차 독립 왕국화 함

: 당조는 강남지역 자체가 지닌 경제력과, 조세제도의 간소화(양세법), 그리고 환관세력의 힘을 빌어 이들을 간신히 견제

: 그러나 이는 환관세력의 전횡을 초래하고 그 부담은 변경의 병사들에게 전가됨. 그 결과 중국의 변경 각지에서 병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지방의 세력자들이 가세하면서 왕조의 동요는 가속화

: 「황소의 난」(874~883)과 당의 멸망(907)

2. 수(隋) · 당(唐) 왕조와 고대 중국의 완성

IV. 당 · 송 간의 사회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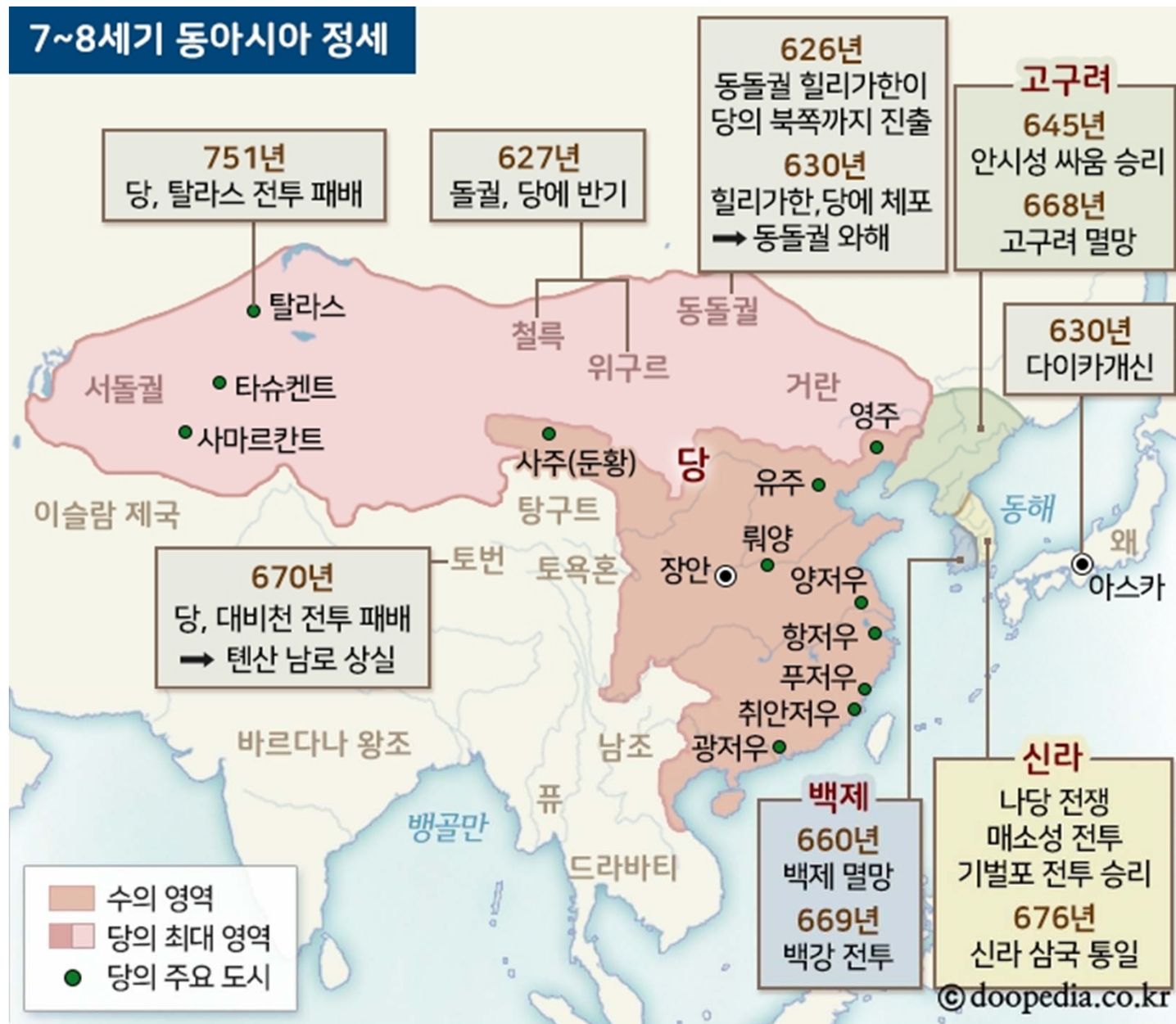
V. 수 · 당의 학술과 문화

: 생략. 이 부분은 각자 텍스트를 읽어볼 것.

2. 수(隋) · 당(唐) 왕조와 고대 중국의 완성: 참고도판



2. 수(隋) · 당(唐) 왕조와 고대 중국의 완성: 참고도판



3. 과제

Q.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중국 고대국가 모델 수용에 관하여

: 이제까지 중국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당 왕조에 이르는, 역사학에서 흔히 중국 고대사라 일컫는 시기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다루었다. 이 흐름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강력한 황제권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즉, 문벌귀족이나 제후왕 등의 중간/지방 지배세력의 배제) 국가체제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현재도 그렇지만 이런 체제를 정비한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 의사결정이 신속하며 국가재정도 양호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그 국가의 군사력이 강화될 것도 자연스럽게 예상 가능한데, 이는 그 주변국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기 마련이다.

: 게다가 굳이 군사적 적대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군주권의 강화를 지향하는 중국의 고대국가 모델은 주변국의 군주들에게 심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 중국의 인접국가/정권의 지배자들은, 유목민들의 사회를 제외하면(이들은 농경사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관심도가 덜했음), 이상과 같은 중국의 국가모델을 수용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 슬라이드에 계속)

3. 과제

Q.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중국 고대국가 모델 수용에 관하여 (계속)

: 한반도의 삼국이 기울인 노력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제외하고, 대신 고대일본의 지배자들이 이러한 고대중국의 중앙집권화 과정을 의식하면서, 자신들도 비슷하게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업로드해 둔 일본고대사 텍스트를 읽고 요약/정리해 볼 것.

: 분량 및 작성/제출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강의자가 이제까지 보조교재에서 강조한 내용(물론 중국사)과 비슷한 부분이 일본고대사에서도 확인된다면, 그 점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편이 보다 용이하게 과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